

캠프 1기 사회연대경제 : 타워빌 사례를 통한 지속가능성 확보

김영석
(사단법인 커뮤니티매핑센터 이사)

1. 서론

“사람에게 생선 한 마리를 주어라. 그러면 하루를 먹을 수 있다. 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라. 그러면 일생 동안 먹을 수 있다.” (호세 마리아 신부)

국제개발협력 NGO인 사단법인 캠프(CAMP)는 현재 필리핀의 도시개발과 기후변화 등으로 강제로 이주당한 도시빈민들과 농촌지역 농민들을 대상으로 사회연대경제를 통해 소득창출과 지속가능한 자립마을을 주민들과 함께 만드는 활동을 지속해오고 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국제사회는 개발도상국에서 발생하고 있는 빈곤을 비롯한 다양한 문제들을 경제개발과 각종 구호 활동을 중심으로 해결하고자 하였다. 일방적이고 시혜적인 구호 활동이 빈곤과 불평등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저개발 국가의 주민들에게 ‘구호 의존성’만 높이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비판이 대두하였다. ‘인간의 존엄성에 깊은 상처를 주는 가난에 종지부를 찍기’ 위해서는 담보 없이 창업을 위한 소액대출이 가능한 빈민을 위한 은행을 설립하고, 장애인을 비롯하여 사회적 약자들을 적극 고용하여 그들에게 사회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사업체를 창업하는 일, 그리고 지역 공동체의 이익에 기여하는 협동조합 등 단지 성과와 이윤의 극대화가 최고의 가치인 시장경제와 달리 사람의 가치를 우위에 두고 공동이익을 추구하고자 노력하는 사회연대경제 방식의 해결책을 대안으로 연구하고 이를 현장에서 시도하는 경우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 글에서는 국제개발협력 분야에서 사회연대경제의 우수 모델로 인정받고 있는 캠프의 주요 현지 활동을 살펴보고자 한다. 캠프의 국제개발협력 분야 활동은 2007년 마닐라(Manila) 빈민지역에서 시작되었고, 사회연대경제를 통한 지속가능한 자립마을 프로젝트는 준비기간을 거쳐 2010년부터 시도되었다. 강제철거지역인 타워빌(Towerville)에 사회적기업을 최초로 설립 운영하고, 현재는 사업지역을 루손섬(Luzon) 중부 딸락(Tarlac)과 남부 민다나오(Mindanao)와 마닐라까지 사업의 규모를 확대하고 있다. 강제이주 지역인 타워빌에서 주민들의 역량강화와 봉제기술사 자격취득과 고용을 포함한 일자리 창출사업을 그 시작으로 현재는 다양한 차원에서 사회연대경제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사업을 시작한 2010년부터 대략 이후 10년간의 기간을 캠프사업 1기 활동으로 구분하고 이후 현재까지를 캠프활동 2기로 구분하여 그동안의 활동들을 정리하여 공유하고자 한다.

아래의 표는 캠프 활동을 두 개의 기간으로 구분하여 기간별 특징적인 내용과 변화를 간략하게 항목별로 구분하여 설명한 것이다.

[표 1] 캠프 활동 시기 구분에 따른 특성 비교

구분	캠프 활동 1기	캠프 활동 2기
접근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사회 구호와 일자리 창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회연대경제 접근 방식으로 전환
주요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민조직과 사회적기업 운영 지역문제해결을 위한 다양한 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속가능한 마을과 경제사회적 구조를 사회연대경제 방식으로 실현
외부환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도시빈민 강제 이주 일자리 부재로 인한 각종 문제 발생 기존 구호단체의 무관심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강제 이주 지역의 성장 캠프 활동에 대한 지역사회의 지지와 협력 확대 주민의 자발성 향상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솔루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민참여를 통한 지역사회 문제해결 노력 (일자리, 보건, 육아 및 교육, 청년 창업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도시와 농촌의 연결을 통한 생산과 고용/유통(윤리적 소비자)을 통한 혁신적인 문제해결 방안 모색
사업유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회적 자본 확충형 사회적 약자 조직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제 해결을 위한 비즈니스형
주요 자원연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국국제개발협력단(KOICA) 및 함께 일하는재단/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특정한 국가에 한정된 자원과 연계됨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국국제개발협력단 사연경 사업 및 국내 기업 등 다변화 필리핀 국내 및 글로벌펀드와 연계를 시도
대표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봉제센터 익팅(Igting) 클리닉 커뮤니티 (KLINIKOMUNIDAD) SALUTE 프로그램 데이케어센터(TECE) 및 캠프 리브로 (Kampo Libro) 아시아지역개발센터 (Asia Community Development Center)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올가(ORGA) 네이처 링크(NatureLink) 캠프 농업사업
조직의 형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다양한 참여자로 구성된 PO (People's Organization) 협동조합(사회적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협동조합(사회적기업) 영농법인 및 유통회사 형태 등 다양

2. 캠프 활동의 시작 (2007~2009년)

1) 슬럼에서 도시빈민을 만나다

슬럼(Slum). 흔히 소설이나 영화를 포함한 예술매체나 언론 등에서 ‘빈민가’라고 번역하는 경우가 많지만, 엄밀히 말하면 적절하게 번역된 것은 아니다. ‘슬럼’이라 불리려면 정부와 같은 공권력이 그 지역에 대해 단속, 통제를 제대로 하지 못하거나, 아예 포기하면서 공권력의 통제와 수습 등이 가능한 범위를 어느 정도, 혹은 완전히 벗어나야 한다. 도시연구자인 마이크 데이비스는 그의 저서 ‘슬럼, 지구를 뒤덮다’에서 지구 상에는 20만 개 이상의 슬럼이 존재한다고 한다. 대부분 무단 점거상태로 지어진 판자촌이 밀집된 형태로 존재한다. 주민들은 가난에서 벗어나고자 농촌에서 이주하여 도시에서 일자리를 찾기 위해 이곳으로 몰려든다. 필리핀의 수도 마닐라에도 세계적으로 유명한 슬럼이 있다. 필리핀 최대의 빈민가인 톤도(Tondo)와 바세코(Baseko)라는 동네다. 마닐라 도심과 가깝고 대규모 항만이 있어서 가난한 주민들이 일용직 일자리를 구하기 쉬워 형성된 지역이다. 이곳은 매년 한국과 전 세계에서 각종 원조기관과 종교단체들이 주민들에게 구호품과 한 끼의 밥을 나눠주기 위해 방문을 선호하는 지역이다. 우리에게겐 스모키마운틴(Smoky Mountain)이라는 쓰레기매립장이 있는 마을로 유명하다. 현재는 매립된 상태이다.

국제개발NGO 사단법인 캠프(Center for Asia Mission for the Poor: CAMP)의 활동도 마닐라 슬럼에서 출발했다. 기독교 신앙에 바탕을 두고 설립된 기관으로 당연한 선택이었다. 2007년 마닐라 항구 근처에 있는 바세코 지역에 있는 사무실을 개설하고 본격적으로 빈민선교 활동을 시작하였다. 현지 빈민 주민조직인 ZOTO(Zone One Tondo Organization)와 협력하면서 긴급구호사업, 지역 청소년 교육 및 지역주민 컴퓨터 직업훈련학교 등을 지원하고, 한국에서 정기적으로 방문하는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빈민지역 환경정비와 시설 보수 사업 등을 실시하였다. 당시 캠프가 목격한 아시아 최대의 빈곤현장은 부적절하게 타인의 가난과 비참함을 사진에 담아 동정심을 일으켜 모금과 연계하려는 빈곤 마케팅의 현장이었다. 인도주의적 원조의 현장은 사라져가고 가난한 사람들의 죽음을 부르는 ‘죽은 원조’의 현장처럼 느껴졌다.

2) 재난과 동거하는 극빈층 그리고 강제이주

빈곤한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서는 재난과 동거하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연이다. 필리핀 전역이 태풍이 지나가는 길목이다. 해안가에 인접한 천연의 저습지인 톤도와 바세코 지역엔 잦은 홍수로 말미암은 재난이 빈번하다. 인구의 1/5이 정기적으로 생명과 재산을 잃을 수 있는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1998년 11월 홍수로 30만 명 이상의 이재민이 발생하였고, 2009년 9월에는 ‘온도이(Ondoy)’라는 태풍으로 인해 마닐라 일대는 물론 톤도와 바세코에 대규모의 이재민이 발생하여 인근에 세워진 임시시설로 수용되었다.

도시 빈민에게는 자연재해뿐만 아니라 화재로 인한 피해도 상당히 컸다. 취사 등 단순 화재에서부터 방화로 의심되는 경우도 빈번히 발생하였다. 2004년 톤도에서 발

생한 화재 당시 피해 가옥이 2,500채가 넘고 공식적인 피해인구가 22,000명에 달했다. 도시빈민들을 지역에서 몰아내기 위한 소위 ‘뜨거운 철거’가 진행되었다. 재개발을 위해 슬럼에 화재를 일으켜 강제철거시키는 방법이다. 또한, 국제행사를 앞두고 도시미화 차원에서 이들은 행사장 주변에서 멀리 떨어진 지역으로 필리핀 정부에 의해서 도시 외곽으로 강제퇴거 당하는 일도 발생하였다.

마닐라의 가난한 사람들은 기후변화로 인해 매년 심각해지는 태풍과 홍수 그리고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하는 화재 그리고 도시개발 등으로 인해 자신의 삶의 터전에서 쫓겨나서 마닐라 외곽으로 강제철거 당하고 그곳에서 새로운 출발을 모색해야 했다. 필리핀 정부에서는 1975년부터 마닐라 항만지역을 개발하기 위해 지속해서 마닐라 빈곤지역 주민들을 마닐라 외곽으로 이주시키기 위한 정책을 시행해왔고, 또한 앞서 언급한 다양한 이유로 이들의 강제이주는 빠르게 진행되었다.

3) 캠프, 바세코 주민들을 타워빌에서 만나다

마닐라 동북쪽으로 약 40여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타워빌이 위치해 있다. 마닐라와 바로 접해있는 불라칸 주의 산호세 델몬테 시(San Jose Del Monte city, Bulacan)에 위치한 지역으로 산을 개간해서 주택지를 조성한 곳이다. 이곳으로 강제철거 당한 주민들은 2003년 한국 ODA와 중국의 차관에 의해 추진된 마닐라 남부통근열차 건설 사업 과정에서 강제로 철거된 도시빈민들과, 태풍이나 화재 등으로 삶의 터전을 잃은 이재민들 6천여 세대 인구 5만여 명을 이주시킨 곳이다. 5평 남짓한 벽돌집이 밀집된 형태로 들어서 있고 마닐라 빈민지역보다는 주거와 상하수도 등 생활여건이 개선된 상태였다. 반면에 동네에 병원도 없고, 탁아시설이나 학교 등은 급증하는 인구에 비해 매우 열악한 상황이었다.

도시빈민들이 마닐라의 열악한 지역에서 생활하는 것은 일자리가 가까이에 있기 때문이다. 반면에 타워빌에는 이들을 위해 마련된 일자리는 전무했다. 자신의 일터에서 멀어진다는 것은 엄청난 시간과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주민의 상당수가 일자리를 찾아 마닐라로 다시 돌아가는 현상이 지속하였다. 결국, 타워빌에는 여성과 아이들만 남게 되고, 빈곤과 가정해체라는 문제가 이들을 괴롭히기 시작했다. 타워빌을 안정된 형태의 마을로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외부의 지원이 절실했지만, 구호단체의 활동은 타워빌까지 미치지 못했다. 마닐라의 도시빈민들은 ‘전형적인 도시의존형 경제구조’속에서 생존했는데 타워빌엔 그들을 보호해줄 정부 차원의 제도나 민간의 노력이 거의 없었다. 캠프는 지역에서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타워빌 지역사회를 통합적으로 돌볼 수 있는 혁신적인 방법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었다. 지역을 살리기 위한 하나의 방식으로 사회적기업을 고민하기 시작한 계기가 되었다.

3. 새로운 땅과 새로운 미션, 원칙

1) 현지조사를 통해 만들어진 지속가능한 타워빌 프로젝트 계획

현지조사는 1년에 걸쳐 이루어졌다. 2010년 4월에 캠프와 한신대 지역발전센터가 공

동으로 타워빌 현지조사를 수행하게 되었다. 현지 조사에는 빈곤, 지역개발, 적정기술, 사회적 기업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하였다. 지역현황, 지역개발 여건, 현지 주민 간담회, 현지 NGO 단체 간담회, 현지 전문가 면담 등을 통해 지역의 문제를 파악하고 솔루션을 도출하는 과정을 반복했다. 당시 캠프는 3개월에 걸쳐서 타워빌 주민의 10%에 해당하는 630여 가구를 대상으로 방문 면접조사를 진행했다. 조사결과 강제철거지역인 타워빌의 민낯이 드러났다. 응답자의 80%에 해당하는 가정이 기본적인 생계유지도 되지 않을 만큼의 소득이었고, 일자리, 보건의료, 육아, 교육 등의 순서로 문제가 해결되기를 희망했다.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필리핀 현지 및 한국 전문가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타워빌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재 NGO 단체들과 기존에 진행해오던 단기적 긴급구호를 넘어선 빈곤의 악순환을 끊어낼 수 있는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대안 마련이 절실하다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다. 현지조사를 토대로 '빈곤 퇴치를 위한 사회적기업 모델'이 제기되었다. 또한, 새로운 지역 프로젝트를 수행함에 몇 가지 원칙도 추가되었다. 첫 번째는 지역사회의 변화의 주체는 타워빌 주민임을 인식시키는 것, 두 번째는 기존사업과 중복을 피할 것 마지막으로 시간이 걸리더라도 지역주민들의 참여를 이끌어 내어 자립기반을 만들어 내야 한다는 것이다.

캠프의 사업이 기존 구호단체의 방식에서 벗어나 보다 주민 주도적인 성격을 가지게 된 것에는 현지 전문가들의 의견이 많은 영향을 끼쳤다. 필리핀국립대학 지역개발학과 모린교수(prof. Maureen C. Pagaduan)와 제자들이 주로 참여를 했다. 이들은 그동안 원조단체 중심으로 사업이 진행되는 것에 대해 비판적인 견해가 있었다. 일방적이고 일회적이며 성과 위주의 사업은 지역주민의 자립 의지를 해침과 동시에 지속가능하지도 않다는 의견을 강력하게 제시하였다. 캠프가 앞으로 수행해야 할 타워빌 프로젝트는 오랜 기간 빈민으로 살아온 사람들의 경험에 기반을 두어 그들의 낮은 자존감을 회복하는 역량강화로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것이 현지 전문가인 모린교수의 신념이었다. 그래야만 그들 스스로 주인의식을 가지고 사업을 지속적으로 진행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당장 성과가 나지 않지만 지속가능한 타워빌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주민들을 더 깊이 만나야 하는 과제가 캠프에 주어졌다.

캠프는 두 달 동안 10회에 걸쳐 주민설명회를 진행했다. 봉제훈련과 봉제센터 운영에 대한 의견도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얻어졌다. 타워빌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역량강화 프로그램은 필리핀 국립대학 소속 교수들을 포함하여 현장실습에 참여한 지역개발학과 학생들에 의해서 장기간 진행되었다. 캠프 사업에 참여하게 된 주민(조합원)을 대상으로 자존감 회복, 리더십 훈련, 지역공동체에 대한 이해, 연대의 중요성 그리고 기업경영에 이르는 다양한 주제로 역량강화 프로그램이 진행되었다. 이러한 훈련 과정은 캠프가 창업시킨 다양한 사업체들이 자립하는데 이바지하였다.

2) 타워빌, 사회연대경제를 향한 캠프의 출발지

지역조사를 통한 준비과정은 캠프에 의미 있는 결실을 보게 했다. 강제철거지역인 타워빌에서 사회적기업 창업이라는 목표를 주민들과 함께 세운 것이다. 프로젝트를 진

행하기 위해 먼저 한국과 필리핀 양국 동시에 법인 등록을 신속히 진행했다. 한국에는 외교통상부 산하 사단법인 등록을 필리핀 정부에는 비영리법인(CAMP ASIA Inc.)으로 각각 등록하여 사회적기업 설립과 운영을 위한 출발을 하게 되었다. 그리고 한국과 필리핀 이사회를 통해서 캠프의 미션과 사업원칙이 수립되었다.

‘나눔과 섬김을 통한 세상의 변화’라는 캠프의 핵심가치와 ‘소외된 이웃들이 가난에서 벗어나 함께 살아가는 사회를 지향한다’라는 미션은 지금까지의 캠프 활동을 변함없이 유지했다. 타워빌을 지속가능한 자립마을로 만들기 위해서는 캠프만의 확실한 사업 원칙이 수립되어야만 했다. 2010년 현지조사를 통해 전문가 그룹의 조언과 주민 공청회 등을 통해 얻어진 지역주민들의 희망들을 모아서 캠프의 사업 원칙인 3Cs를 만들었고 지금까지 모든 사업에 적용하고 있다. 이러한 캠프의 3Cs는 국제개발협력 분야에서 최근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지역사회가 주도하는 개발(CDD, Community Driven Development)과 지속가능한 발전목표(SDG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가 추구하는 접근방식이 포함되어 있다.

- **From the Community:** 사업 아이템은 외국인인 한국 사람이 정하지 않고, 현지 주민들이 정하도록 한다. 그 이유는 국제개발 현장에서 공급자 중심의 사업 때문에 실제로 현지에 필요한 사업과는 동떨어진 결과를 보이는 경우가 있기에 지역에 필요한 사업은 지역 주민 스스로 정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 **With the Community:** 캠프의 사업은 지역과 함께 하여야 한다. 이미 지역에 진행되고 있는 사업은 중복해서 진행하지 않는다. 캠프가 하는 사업은 지역을 살리기 위한 것이지, 지역과 경쟁하거나 갈등하기 위한 것은 아니다. 이미 지역 내에서 진행되거나 계획이 있는 것은 없다는 원칙으로 지역 자영업자와의 상생을 포함하는 원칙이다.
- **For the Community:** 캠프의 사업은 일회적이고 구호적인 사업이 아니라, 지속가능성에 기반을 둔 지역을 위한 사업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외부 지원기관의 명예나 성공이 아닌, 지역의 문제 해결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

4. 타워빌 프로젝트, 지속가능한 자립마을 만들기

1) 사회적기업 창업을 위한 마중물 구하기

‘돈은 사람을 위해 존재한다’라는 말이 있다. 사회적기업가에게 현실은 이 말과는 다르다. 사회적기업은 늘 돈이 부족하다.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열정이 있고 함께 할 사람들도 있지만 결국 문제는 사회적기업의 창업과 운영자금을 선뜻 대출을 해주거나 투자를 하겠다는 개인이나 금융기관을 만나는 게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이전처럼 구호나 긴급재난을 위해 후원금을 받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일이었다. 타워빌 주민들은 예전처럼 한국으로부터 후원이 올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었다. 뉴스에서 볼 수 있는 학교나 병원건물이 들어서는 것처럼 대한민국 정부와 기부자들의 후원으로 지어진 그럴듯한 훈련센터를 상상했을지도 모른다. 지속가능한 자립마을이 되기 위해서는 이철

용 대표와 여러 이사진의 입장은 지역 자원과 인력을 먼저 찾아보고 외부의 자원과 지원을 적절히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이었다. 캠프가 사회적기업 창업을 위해 처음으로 협력과 지원을 제안한 곳은 바로 타워빌 동네가 속해있는 산호세델몬테 시 정부 관계자를 면담하고 사업의 내용과 취지를 설명하여 사업을 위한 유희공간을 제공받는 것이었다. 타워빌 중앙에 있는 시 정부 소유의 다목적홀을 5년간 무상으로 임대를 받는 데 성공하였다.

그리고 동시에 창업을 위한 마중물이 필요했다. 마중물이란 과거 수도가 없던 시절 지하수를 끌어 올리는 수동 펌프에 처음 넣는 한 바가지의 물을 말한다. 캠프와 타워빌 주민들에게는 혼자 힘으로 세상 밖으로 나올 수 없던 강제철거지역에서 지속가능한 자립마을이라는 비전을 마중하는 전혀 다른 성격의 외부로부터의 마중물 투자가 필요했다. 함께일하는재단이 그 역할을 기꺼이 맡아주었다. 재단에서 지원하는 해외지원사업인 스마일투게더파트너십 공모사업에 제안서를 제출하였다. 재단의 입장에서도 재단 설립 이후 최초로 실시하는 해외지원사업이라 필리핀에서 이제 막 창업하고자 하는 캠프를 선정하는 게 쉽지는 않았을 것이다. 교육공간은 지역에서 확보하였고, 봉제교육을 위한 재봉틀, 전기시설, 창고 등을 마련하는데 사용되었다. 강제철거지역인 타워빌의 주민을 대상으로 설립된 최초의 훈련센터가 된 것이다. 이후로는 한국국제협력단(KOICA)의 민관협력사업,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해외지원 사업, 국내 대기업의 사회공헌 및 기업재단 기금 등 다양하게 펀드를 지원받아 사업을 확장시키고 있다.

2) 직업훈련에 포함되어야 하는 것들

2010년 지역조사 결과를 주민설명회를 통해 공유한 후 나온 최종 사업 아이템은 지역 상황을 고려한 학교 교복을 만드는 봉제센터였다. 필리핀은 유치원부터 대학교, 심지어 직장인까지 교복과 단체복을 입는 문화가 보편적인데, 매년 새 학기가 되면 교복을 구입하는 것이 큰 과제였다. 상당수 가정은 경제적 형편 때문에 교복을 구입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교복 가격이 그리 비싼 편은 아니었지만, 하루 한 끼를 걱정하는 타워빌 주민들에게는 커다란 부담이었다. 당시 도전해볼 수 있는 시장이라고 생각했고 여기에 더해서 '타워빌 나나이(Nanay, 필리핀 따갈로그어로 어머니)들이 손수 만든 교복', 지역에서 생산하고 소득을 얻고 타워빌 아이들이 지역에서 생산된 저렴한 교복을 쉽게 구입할 수 있는 생산과 소비가 선순환하는 봉제센터를 상상했다. 현실에서 꿈을 실현하는 일은 늘 시행착오와 시간이 필요하다. 캠프도 마찬가지였다. 교복을 주된 아이템으로 생산하는 봉제센터를 만들기로 했으나, 기술을 가진 사람들이 동네에는 없었다. 제품을 만들기에 앞서 주민들에게 적합한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통해서 그들이 기술을 습득하는 것이 시급했다.

보통의 직업훈련 과정은 훈련 이후 일자리로 연결되지 않는 한계가 많아서 문제가 된다. 국제개발협력 현장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다. 봉제 직업훈련의 목표를 교육 수료에 머물지 않고, 국가기능사 2급 자격증 취득을 목표로 직업훈련을 진행하였다. 자격증을 취득하게 되면 봉제센터에서 일할 수도 있지만, 국내 취업은 물론 해외취업과도

연계될 수 있도록 하였다. 봉제교육은 필리핀 정부의 기술교육청인 TESDA(Technical Education and Skills Development Authority) 불라칸 지부와 협약을 맺고 전담강사를 파견받아서 실시하였다. 교육내용은 봉제뿐만 아니라 옷의 구조, 디자인, 재단, 봉제 등 이론과 실기를 종합적으로 학습하여 단순 봉제기술을 넘어서는 전문가 양성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였다.

직업훈련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필리핀 국립대학의 지역사회개발학과 모린 교수가 제안한 것은 물고기 잡는 방법을 가르쳐주기 전에 참여자들에게 사회적 역량 강화(Social Empowerment)와 문제 해결 능력을 심어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들은 강제철거와 가정해체, 자녀양육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 탓에 낮아진 자존심과 주인의식과 리더십을 회복시키는 과정 없이 직업훈련이 성공할 수 없다는 주장이었다. 모린교수의 지도로 지역개발학과 학생들이 현장실습과 연계된 역량강화 훈련을 1개월 동안 진행하게 되었다.

역량강화 훈련과 직업교육만이 전부는 아니었다. 훈련 초기에는 잦은 지각 또는 수업에 빠지는 훈련생들이 늘어났다. 그 원인을 분석해보니 가사와 육아 부담 그리고 중요한 것이 훈련으로 인해 잠시 일을 중단해야 하는데 이 때문에 생계유지의 어려움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훈련기간에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쌀과 부식 중심으로 생필품을 제공하였다. 일종의 교육수당인 것이다. 또한, 아이를 맡길 수 있는 봉제센터 내에 돌봄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그 결과 중도 포기를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익팅 봉제센터의 훈련과정이 일정한 틀로 완성되었다. 한 달간의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이수한 훈련생들은 4개월 과정(주 5일, 하루 8시간)의 봉제교육을 받게 되고 이 기간에 교육수당(현물)과 돌봄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교육을 수료하게 되면 국가기능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하는 시험을 보는 과정이다. 그리고 수료식으로 패션쇼까지 더해졌다.

2011년 최초의 봉제훈련을 시작할 때는 캠프사업에 대한 인지도가 낮아 모집에 다소 어려움이 있었지만, 자격증을 딴 여성들이 일자리를 얻게 된 것이 입소문이 나면서 경쟁률이 높아졌다. 훈련생 선발을 위한 선발기준도 세워야 했다. 타워빌 거주 여성 가장, 다자녀 가정 그리고 월수입 3,000페소(한화로 8만 원) 이하로 선발기준을 정하여 운영했다. 40명의 선발인원이 이후에는 70~80명으로 늘어났고, 대부분이 2급 국가자격증을 취득했고, 이들 여성은 익팅(Igting) 봉제센터에서 일하거나 외부에 취업하게 되었다.

최초의 봉제훈련에는 40명의 교육생 중 22명이 정부인정 봉제기능사 2급 자격증을 받았고, 14명은 교육기관인 TESDA 수료증을 받게 되었다. 수료식은 타워빌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교육생들의 직접 제작한 의상을 입고 패션쇼를 개최하였다. 타워빌 남녀들이 만든 옷을 입고 스스로 모델이 되어 런웨이를 걸었다. 이러한 이벤트를 통해 익팅의 조합원들은 자존감의 회복과 자신감을 얻게 되었다고 밝히고 있다. 패션쇼는 매년 지속하였고 그 규모와 지역주민들의 관심이 계속 높아져 지역의 중요한 이벤트가 되기도 하였다.

3) 성장하는 사회적기업 익팅(Igting)

익팅 봉제센터는 최초로 주민조직(PO, People's Organization)으로 등록했고, 2017년 제품의 법적인 판매를 위해 판매법인으로 전환하고 시 정부에 정식 사업자 등록을 거쳐 기업의 면모를 점차 갖추어갔다. 2019년에는 익팅의 멤버들이 참여하는 신용협동조합을 설립하여 필리핀 협동조합청에 등록을 마쳤다.

봉제센터 초기엔 지역 내 각종 학교에 교복을 납품하는 것으로 목표를 정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지역이라 신학기에 교복을 구입하기 보다는 물려 입는 경우가 많아서 판매가 예상보다 저조했고, 팔리지 않은 교복은 재고가 되기도 했다. 이에 제품군을 다양화할 필요성과 자체 브랜드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하였다. 2014년부터는 봉제센터에서 생산되는 제품에 Igting(필리핀 따갈로그어로 불을 붙인다는 뜻)이라는 자체 브랜드를 런칭하여 제품에 부착 생산하게 되었다. 브랜드 로고 작업은 한국의 그린디자이너인 윤호섭 교수가 사회적기업 익팅의 의미를 담아서 제작하였고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다. 하청으로 지역에 있는 학교에 정기적으로 교복납품과 현지 회사 및 구호단체 등으로부터 주문받은 의류와 가방을 비롯한 소품류 중심으로 제품을 생산하다가 자체 브랜드 제품 제작으로 인해 익팅을 외부에 적극 홍보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이때부터 제품에 대한 품질관리 및 영업 및 마케팅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게 되었고, 매일 시행되는 월례회에서 다루어지는 주제가 되기도 하였다.

이는 익팅이 주민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수준에 머물지 않고, 직원으로 고용된 주민들이 스스로 사회적기업에 관심을 두고 직접 참여하고 성과를 공동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지속가능한 성장에 중요한 요인이라고 생각했다. 캠프는 지속해서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자조 모임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했다. 리더를 총회를 통해 선출하고 생산, 관리, 마케팅 등 위원회를 조직하고 한 달간의 성과를 공유하고 익팅의 참여자들이 경영에 대해 논의하는 구조들을 지속해서 만들어 나갔다. 현재는 생산과 수익배분에 대한 의사결정과 지역사회 공헌 등에 있어서 익팅의 구성원들이 스스로 결정하고 실행하는 단계로까지 성장하였다.

익팅의 활동이 지역을 넘어서 필리핀 전국적으로 알려지게 된 사건이 있다. 바로 코로나 팬데믹 기간에 발생하였다. 필리핀 전역에 봉쇄령이 내려지고 생필품을 구매하기 위한 최소한의 이동만 허락되었던 상황 속에서 사회적기업 익팅도 생산을 멈추어야 했다. 익팅의 멤버들은 봉쇄된 지 한 달 만에 마스크와 방호복 등을 생산하기로 하고 코로나 팬데믹 기간 중 제품 생산을 지속하였다. 생산된 제품들은 지역사회에 기부되고 또한 각종 의료기관으로 납품되어 필리핀 정부가 코로나 팬데믹을 극복하는데 이바지하기도 하였다. 필리핀 최대 언론인 INQUIRER(2020. 12. 15 일자)에 팬데믹 기간의 방역제품 생산 활동을 비롯하여 캠프의 그동안 활동까지 종합적으로 보도되었다. 사회적기업 익팅이 지역사회 차원의 일자리 창출을 넘어서 국가적인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기여했고 언론 보도 등을 통해서 알려지게 되어 참여자들의 자긍심이 높아지는 계기가 되었다.

아래의 표는 사회적기업 익팅을 시기별로 구분하여 발전과 변화의 추이를 정리해 본 것이다.

[표 2] 사회적기업 익팅의 시기별 변화 양상

	2011년 - 2014년	2015년 - 2017년	2018년 - 2020년
조직형태/등록 기관	- PO 등록/SEC	- 판매법인, 사업자등록/시청, BIR	- 신용협동조합 별도 설립/ CDA
캠프의 운영 참여도	- 100% - (적극적 협력·지원)	- 50% - (네트워크·교육지원)	- 10% - (파트너십)
리더선출	- 대표 구성을 위한 5명의 리더 선출	- 선출진 7명 - 실무리더 2명	- 의사결정기구 BOD 신설 - 선출진 7명 - 위원회리더 6명
위원회 수	- 체계화된 위원회 없음	- 4개 위원회	- 6개 위원회
자조모임 진행	- 훈련프로그램과 공동으로 진행	- 정기 월례회(GA)	- 위원회별 사전 모임 - 정기 월례회
제품 생산	- 주 아이템은 교복 - 에코백 생산	- 필리핀 군복제작 - 익팅 브랜드 제품 런칭(가방 및 러그)	- 하청 납품 대량화 - 방역제품(코로나 기간)
주요고객 및 마케팅	- 지역내 시장 중심 - 일부 후원자 및 기관	- 온라인 홍보와 바자회 등 참여 - 한국 온라인 쇼핑몰 입점 - 하청납품 확대	- 클라우드 편딩 - Go Lokal 전문매장 입점 - 필리핀 기업청 연계
주요 특징	- 체계적인 조직이 갖춰지지 않음 - 역량강화 교육 집중	- 익팅 자체 상품 제작 및 공정세분화 - 총회의 역할 비중 증대 - 기업과 조직의 분리	- 익팅 조직의 자주성 확립 - 독립적인 협동조합 운영 - 1인 봉제기업 설립 및 지원

<참고: 이철용(2021), 사회적경제를 통한 국제개발협력의 지속가능성 연구, 경희사이버대학교 문화창조대학원>

5. 사회연대경제가 만든 지역의 변화들

1) 사회적 자본 축적을 통한 지역문제 해결

인간은 한번 도움을 받게 되고 그 도움이 지속하면 결국 의존하게 된다. 원조에 중독된 개발현장의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또한, 상당수의 지원단체가 단기간에 가시적인 성과, 가령 학교나 병원 건물을 빠르게 완성하고 지역사회에 크게 알리는 행사 등을 통해서 후원자로부터 신뢰를 얻고자 한다. 하지만 건물이라는 하드웨어만 남겨진 채 텅 비어 쓸모없이 버려진 경우를 종종 보게 된다. 단기적인 처방은 원조에 의존하는 주민들이나 단기적인 성과만 바라는 원조단체 모두에게 원조의 피로감과 부정적인 인식만 쌓이게 된다. 따라서 개발현장에서 지속가능한 자립마을은 이와는 다른 대안을 모색해보아야 한다. 캠프의 경우 지역사회의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은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와 기여, 민주적 의사결정, 협동과 돌봄, 미래 인재 육성, 이를 통한 상호신뢰 구축 등으로 이루어진 사회적 자본을 지역에 꾸준히 축적하는 방식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했다. 아동 돌봄, 지역사회 보건체계 구축, 청소년 교육 및 미래 인재양성, 에너지와 환경 등에 있어서 접근방식과 사업의 내용 등을 간략하게 정리해보았다.

2) 보육서비스와 청소년 교육

여성이 아이를 키우는 동시에 직장에 다니는 경우 육아에 대한 부담 때문에 기술을 배우거나 일자리를 지속하기 어렵다. 익팅에서 봉제훈련을 받거나 일을 하는 대부분 직원의 경우 여성 가장인 경우가 많았다. 지역에서는 아이를 맡길 보육시설이나 영유아 교육시설이 거의 없고 또한 비용에 대한 부담도 높은 상황이라서 사업 초기에는 지역 내의 유치원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면서 익팅에서 일하는 직원들의 자녀가 지역 내 유치원에서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운영하였다. 봉제센터를 이전하면서 어린이집을 함께 개원했고, 시설을 지역사회에 개방하여 주민들의 아이들도 함께 돌볼 수 있는 시설로 운영하였다.

타워빌 지역에 있는 학교들의 시설이 매우 열악하다. 동네에는 아동·청소년을 위한 시설이 전혀 없는 상황으로 주민들의 요청에 따라 학교 인근에 공간을 활용하여 가야가야(Gaya Gaya)의 ‘캄포리브로 도서관’(Kampo Libro Library)과 ‘파쿠아난 도서관’(Pakwanan Library)을 운영하였다. 이를 지역 아동·청소년과 주민들을 대상으로 책 대여서비스를 비롯하여 도서관 공간을 활용한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더 많은 배움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기여하였다. 또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공부의 기회를 가질 수 없는 지역 내 학생들을 대상으로 장학사업을 진행하였다. 이러한 청소년 프로그램을 진행하기 위해 지역 내 4개 국립고등학교와 파트너십을 맺고 협력을 이어나갔고, 학교장과의 정기적인 미팅을 통해 교육문제와 지역 내 청소년 지원에 대해 꾸준히 논의를 진행하였다.

지역 내 청소년 교육과 학교와의 파트너십을 통해서 캠프는 지역을 변화시키는 힘은 사람에게 있다는 확신을 하게 되었고, 잠재적인 역량을 가진 청소년들을 선발하여

리더십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그들 스스로 지역의 변화를 이끌어 갈 수 있는 사회적기업가 정신을 지닌 Change Maker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청소년 리더십 프로그램인 살룻(SALUTE, Scholars As a Leader with Unity Through Essence)에는 매년 60명가량이 학교장의 추천을 통해 선발된 청소년들이 참여하고 있다. 참가한 학생들은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각자의 솔루션을 테드톡(TED-Talk)을 통해 공유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 프로그램을 수료한 학생들은 이후 졸업생 모임인 ONE STEP(ONE Society bringing Transform through Effective Programs)에 가입하여 지속해서 활동하게 된다. 자원봉사, 후배 그룹 멘토링 그리고 학교 진학과 창업활동 등을 지원받으면서 타워빌의 미래를 책임질 지도자로 성장하고 있다.

3) 지역 보건의료 서비스

강제철거지역에 병원이 들어서는 경우는 거의 없다. 의료 서비스는 지역 조사에서 두 번째로 수요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캠프가 운영하고 있는 보건 사회적기업인 ‘클리닉코뮤니다드’(KLINIKOMUNIDAD)에서는 현지 의사의 의료서비스 제공뿐만 아니라,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다양한 건강문제에 대해 주민들이 교육과 참여를 통해 해결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고자 노력해왔다. 가령 지역의 의료 데이터를 커뮤니티 매핑(Mapping)을 통해서 수집하고 이를 활용하여 응급환자이송시스템(Emergency Patient Transportation System, ETS)을 기획하여 이를 지역에서 주민조직과 응급기관을 연계하여 진행하는 의료분야의 혁신적인 활동을 수행하였다. 주민의 건강문제 해결을 위해 적정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포함하여 주민들 스스로 건강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생활습관을 개선하는 캠페인을 지역 차원에서 지속해서 진행하고 있다.

4) 에너지와 친환경 분야

타워빌 지역으로 강제 이주한 주민들은 기후 변화로 인한 각종 자연재해 때문에 살던 곳을 떠나야 했던 기후 난민에 해당한다. 캠프는 일찍이 에너지 자립마을에 관한 연구와 이를 실제 사업장에 적용하기 위한 노력을 꾸준히 진행했다. 익팅 봉제센터는 자연광을 최대한 활용하고 실내 공기를 자연순환 할 수 있는 적정기술을 활용하여 설계하였다. 일반 봉제작업장의 경우 열악한 환기시설 때문에 상당수의 노동자가 호흡기 질환 같은 직업병을 앓고 있기에, 봉제센터 건축과정에서 쾌적한 근로환경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또한, 어린이집은 태양광 발전을 통해서 필요한 전력을 공급받고 있다. 지역 청소년들이 친환경 에너지와 적정기술에 관해 관심을 둘 수 있도록 한국의 기업 CSR 프로그램 연계한 친환경 워크숍(교육) 등을 진행하였다.

6. 결론

지금까지 국제개발협력 NGO인 캠프가 강제이주지역인 타워빌에서 빈곤과 실업, 가정 해체 등 다양한 문제에 노출된 지역사회를 치유하고 지속가능한 자립마을을 만들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으로 사회연대경제에 기반을 둔 사업들을 추진해왔음을 살펴보았다. 최근 국제개발협력 단체 중에는 지속가능성에 주목하면서 일방적인 시혜나 원조가 아닌 사회적기업을 통한 지역사회 문제 해결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또한, 우리 정부의 공적개발원조 역시 이러한 시대적인 변화를 반영한 정책들로 전환되는 중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그동안 캠프가 수행한 여러 사업은 국제개발협력 분야에서 선도자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왔다고 평가받을만하다.

더욱 중요한 것은 그동안 사업에 참여했던 지역주민들이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도 중요할 것이다. 타워빌에 랜드마크가 된 대형벽화가 있다. 사회적기업 익팅의 조합원들이 그린 공동벽화이다. 벽화에는 그들이 어떻게 이곳으로 이주하게 되었으며, 익팅을 통해서 자신과 타워빌 마을공동체가 변화된 시간의 기록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조합원들은 사회적기업 익팅이란 배에 함께 타서 파도치는 바다를 향해해서 지속가능한 자신들의 마을로 향하고 있다. 그리고 캠프는 먼바다에서 그들의 앞을 비춰주는 큰 배로 남아서 역할 해주기를 바라는 그들의 희망 사항도 함께 벽화에 그려넣었다. 주민들이 벽화를 통해 캠프의 사업을 평가한 것이다. 결론적으로 사회연대경제를 통한 접근은 단순히 일자리와 소득을 증대하는 것을 넘어서 주민들의 역량강화와 주체성 회복을 통해 지속가능한 자립마을(공동체)을 만들어나가는 과정이다. 지난 10년의 캠프의 사업이 국제개발현장에서 혁신적이고 모범적인 사례로 평가되고 다양한 현장으로 확산하기를 바란다.

<참고문헌>

- 기독교사회적기업지원센터 『기독교 사회적 기업가, 신앙과 실천』 만우와 장공, 2016.
- 데이비스, 마이크 『슬럼, 지구를 뒤덮다:신자유주의 이후 세계 도시의 빈곤화』 김정아 옮김, 돌베개, 2007.
- 이철용 『스마일 타워빌』 사단법인 캠프, 2017.
- 호세 마리아 『호세 마리아 신부의 생각』 박정훈 옮김, HBM협동조합경영연구소, 2016.
- 사단법인캠프 연간보고서 (각년도)
- 이철용 “사회적경제를 통한 국제개발협력의 지속가능성 연구”, 경희사이버대학교 문화창조대학원, 2021.
- 이상현 “사회적경제를 통한 국제개발협력의 진화: 필리핀 타워빌 지역 사례를 중심으로”, 민주사회와 정책연구 통권 29호, 2015.
- 오단이 “국제개발협력분야 사회적경제 적용사례 연구: 지역사회밀착형 모델을 중심으로”, 한국비영리연구 통권 17호, 2018.